

귀환이민 유형화에 따른 재미 한인이민자의 귀환동기 연구*

최대희

(전남대학교)

1. 들어가며
2. 귀환이민에 대한 3가지 접근법
 - 2.1. 귀환이민에 대한 신고전주의경제학적 접근
 - 2.2. 귀환이민에 대한 구조주의자의 접근
 - 2.3. 귀환이민에 대한 초국주의적 접근
3. 귀환이민 유형화에 따른 귀환이민자의 동기
 - 3.1. 경제적 동기인가? 초국적 이민자인가?
 - 3.2. '실패의 귀환'인가?
 - 3.3. 이민자의 고령화와 '정서적 귀환'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으로 귀환한 재미한인이민자 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귀환동기를 파악하고자 했다. A의 사례는 귀환의 '성공'과 '실패'를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A 가족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이주 주기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다. 귀환이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이후’가 귀환이민 ‘이전’이 되는 경우는 C에게서도 드러났다. 본 연구는 Cerase의 귀환이민 유형 분류에 따라, ‘실패의 귀환’ 관점에서 B의 사례를 분석했다. B의 귀환은 수용사회에서 이민자가 느끼는 소속감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귀환동기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의 귀환이 이민 ‘실패’의 결과라면, 그 실패는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실패’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Diemel의 유형론을 빌려 귀환이민의 ‘정서적 동기’에 주목해 보았다. 특히 D와 C의 사례를 통해 귀환이민의 동기로서 정서적 요인이 이민자의 고통화와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귀환이민, 귀환이민이론, 초국주의, 재미한인, 귀환동기

1. 들어가며

오늘날 인구의 이동을 관찰하는 자라면, 20세기 후반 이래 전세계적으로 이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이견을 달기는 힘들다. 그런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민의 진행 방향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주요 선진이민국가에 거주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 혹은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출신지국가로 귀환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를테면 멕시코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이민자 공급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순이동 제로”를 경험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37만 명의 멕시코인이 미국에 도착했다면, 같은 기간 139만 명의 멕시코인이 모국으로 되돌아갔다(Miryam, 2017: 2-3). 유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는 미국을 넘어 그간 이민자를 수용해 오던 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과 같은 다수의 주요 목적지국가를 강타했다. 반면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을 위시한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발달한 이민 송출국가들은 이 시기 경제적 확장기를 경험했다. 그러자 특히 숙련된 노동자에게 귀환이민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고, 귀환이민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Lang, 2013: 11-12). 오늘날 귀환이민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

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으로의 귀환이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이민이 1976년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에 비례하여, 귀환이민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귀환이민의 수는 해외이민자 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이민 대비 귀환이민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져 2019년에는 36%를 상회했다(통계청, 2020 : 해외이주신고자현황).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귀환이민자 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을 고려하면, 실제 귀환이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세기 초반까지 귀환이민에 대한 연구는 일천했다. 귀환이민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Anders H. Stefansson은 2004년 자신의 저서 *Homecomings : Unsettling Paths of Return*에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귀환 이주는 인류학 및 이주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관찰하였다(Stefansson, 2004: 3). 귀환이민 연구는 최근 20년간 붐을 이루고 진행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용국가 및 출신국가 공히 이민자의 귀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유럽사회에서는 ‘유용하지 않는’ 이민자를 본국으로 귀환시키려는 의지가, 수용국가에서는 이들을 활용한 경제개발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민자가 출신국가와 수용국가 모두에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는 초국적 연구방법론의 진화를 지적할 수 있다(Pauli, 2021: 95-96).¹⁾

1) 국내에서의 귀환이민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부각되었다. ‘일계인’, ‘조선족’, ‘고려인’ 등 한인디아스포라 후손들의 귀환과 재이주 그리고 정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는데, 그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20세기 중반 아르헨티나로 이민한 한인 1.5세의 귀환과 정착을 연구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위기가 이민자 후손의 한국으로의 귀환을 추동했음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김영철, 2016). Lee, Friesen, and Kearns(2015)는 뉴질랜드 이민 1.5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귀환이민의 동기를 추적했는데, 한인청년들의 귀환은 무엇보다 취업과 결혼대상자 찾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용문은 재호주 한인의 귀환이민 의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구조적 불이익의 경험 인식이 높을수록, 영어구사력이 낮을수록 귀환이민 의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정용문, 2020). 재미한인의 귀환과 관련하여, 백은지(2019)의 석사학위 논문과 신희정(2021)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이 두 논문 모두 귀환 이후 한국사회로의 재적응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민 동기를 추적하는 본 연구와 궤를 달리 한다.

귀환이민은 국제이주의 하나의 하위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간 귀환이민은 신고전주의경제학, 노동이주신경제학, 구조주의, 초국주의, 사회연결망 이론 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Cassarino, 2004). 그러나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귀환이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것은 귀환이민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봄을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환이민은 그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상적 이해에 따르면, 귀환이민자는 수용국가로 이민을 떠났다가 출신국가로 되돌아오는 자를 뜻한다. 이를테면 유엔통계국은 귀환이민자를 “다른 나라에서 (단기 또는 장기) 국제이민자로 지내다가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되돌아가는 사람으로, 본국에서 최소 1년 동안 머물려고 하는 자”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념들이 깔려 있다. 특히 귀환한 사람이 부모님의 출신국가로 귀환하는 경우 이를 귀환이민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체류 기간에 관련된 영구 귀환과 일시적 귀환 구분의 문제 등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Dumont and Spielvogel, 2008: 161-162). 본 연구는 우선 그간 이주연구자들이 귀환이민에 대해 적용한 이론적 틀에서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주목한다. 첫 번째 방향은 귀환이민의 경제적 동인을 증시하는 입장으로 푸시-풀(push-pull) 모델에 토대를 둔 신고전주의적 접근이다. 둘째 방향은 구조주의적 접근으로 출신국가의 사회적 및 제도적 요인을 배경으로 귀환이민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 방향은 초국주의적 접근으로 앞의 두 가지 접근을 일종의 ‘경제결정론’으로 비판하면서, 이민자의 능동성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초국주의는 영구 정착 그리고 이주의 종결을 특징으로 하는 이전의 귀환 정의에서 벗어나, 결말이 열려 있는 보다 개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두 개의 접근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겨울을 전후로 한국으로 귀환한 4명의 재미한인이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모임(미준모)”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되었다. 메일을 보내 연구자의 의도를 밝힌 뒤, 동의와 협조를 구했다. 인터뷰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진정된 2022년 봄부터 겨울까지, 각각 2-3

차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도서관과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에 기반 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법률적, 정책적 귀환이민 배경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귀환이민 동기를 그들의 내러티브를 토대로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그들의 귀환에 추동력을 제공한 것은 경제적 요인인지 아니면 정서적 요인인지에 주목하였다. 이때 본 연구는 그들이 수용사회에서 어떤 소속감 또는 소외감을 느꼈는지를 탐색하면서, 귀환의 정서적 동기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들이 초국적 이민자로서의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귀환이 자신의 이주 궤적에 종결 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본 연구에는 구조주의적 접근에 토대를 둔 Cerase의 유형론과 초국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받은 Dienel의 유형론이 참조되는데, 이때 각각의 유형은 인터뷰 대상자의 사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띤다.

2. 귀환이민에 대한 3가지 접근법

2.1. 귀환이민에 대한 신고전주의경제학적 접근

Cassarino에 따르면, 신고전주의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은 귀환이민을 '실패'로 인식한다. 국제이주는 수용국가와 송출국가 사이의 임금 격차 때문에 발생하는데, 사람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한다. 따라서 출신국가로의 귀환은 이민자들이 이주 계획과 관련된 열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요컨대 귀환이민자들은 수용국가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다(Cassarino, 2004: 257). 이민자들이 이민을 결정할 당시, 수용국가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 출신국가에서 획득한 자격을 수용국가에서 인정받는 것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수용국가에서의 주거비용과 같은 생활비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그들의 다수는 출발국가로 되돌아 올 확률이 높다는 것

이다. 또는 이민자들이 수용국가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았을 때, 목적지 국가에서 누릴 생활수준이나 저축 능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이민에 대한 실망을 낳을 수 있고, 결국 귀환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Dumont and Spielvogel, 2008: 178).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에 따르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이주비용과 편익을 잘못 계산한 '실패한' 이민자들이 귀환한다는 것이다(Cassarino, 2004: 255).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관점은 출신국가로 귀환하는 것을 이주의 실패로 간주하고, 이주의 '성공'은 수용국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주의 '성공'을 수용국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이후 이주를 '과정'으로 바라보는 초국주의적 관점에 의해 크게 문제시될 터이다. 또한 이 패러다임은 구조주의자들로부터 귀환자들의 귀환 결정에 출신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Cassarino, 257).

2.2. 귀환이민에 대한 구조주의자의 접근

Cassarino에 따르면, 구조주의자(structualists)는 귀환을 맥락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귀환이민을 주로 이민자의 개인 경험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신고전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출신국가의 사회적 및 제도적 요인과 관련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귀환 경험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출신국가의 상황적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Cassarino 257-261).

구조주의적 접근방식에 토대를 둔 Francesco Cerase는 미국에서 귀환한 이탈리아 이민자를 분석하면서, 귀환이민자의 이민 기대와 열망을 중심으로 귀환 이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4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실패의 귀환(Return of failure)'은 수용국가에서 경험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수용국가에 통합되지 못한 귀환자들을 가리킨다. 두 번째 유형인 '보수주의의 귀환(Return of conservatism)'은 고향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귀환하는 이민자를 가

리킨다. 그러나 이들 귀환이민자들은 아래 네 번째 유형인 ‘혁신의 귀환’과는 달리, 출신국가의 사회적 맥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세 번째 유형인 ‘은퇴 귀환(Return of retirement)’은 노년이 되어 출신국가로 돌아가는 은퇴이민자를 의미한다. 네 번째 유형인 ‘혁신의 귀환(Return of innovation)’은 이주 경험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기술과 자질 그리고 재원을 출신국가의 혁신을 위해 활용할 준비가 된 행위자를 가리킨다(Cerase, 1974: 251-254).

중요한 것은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귀환은 더 이상 개개 이민자들의 수용국가에서의 경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접근은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첫 번째 관점과 마찬가지로, 주로 경제 및 금융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귀환자를 수동적 존재로 간주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귀환자들이 해외체류로 인해 출신 사회와의 ‘접촉’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회연결망 이론과 초국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로부터 강한 문제제기를 받았다(Janet, 2012: 461).

2.3. 귀환이민에 대한 초국주의적 접근

귀환이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쌓이면서, 연구자들은 이주가 단순한 소득 계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귀환이민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문제를 배제하면서, 경제적 요인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이전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초국주의(Transnationalism) 개념의 발전은 국제 이주연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초국주의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 이론을 참조하면서, 이민자 네트워크가 국경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오늘날의 이민자를 초국적 이민자로 재개념화 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두 개의 세계”를 가진 자로 묘사하거나, 모국과 수용국가에 걸쳐 있는 사회네트워크를 가진, “사이에 끼인 여행자(in-between travelers)”로 설명하였다(Janet, 2012: 462). 이민은 더 이상 출신국가

에서 수용국가로의 일방통행적 흐름으로 전제되지 않게 되었고, 귀환이민 역시 더 이상 이주 주기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초국주의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재이주를 선택하고 있음을, 아니면 두 국가 사이를 오가는 진자 이동(셔틀 이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이주는 이제 출신지역과 도착지역이라는 두 개의 공간적 지점 그리고 하나 혹은 두 개의 시점(이주 및 귀환이민)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귀환이민은 이제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이 삶의 도정에서 만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보다 나은 취업 가능성을 찾아서 또는 경력을 쌓기 위해 단 하나의 지역공동체 또는 단 하나의 국민사회에 정착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들은 가족경제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초국적 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귀환이민 또는 제3의 장소로 삼각이주를 감행한다(프리즈, 2023: 194). 초국주의는 이러한 반복적 이주를 초국적 이민자의 생애에서 고유한 구성요소로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초국주의적 관점이 강조하는 것은 이주 및 귀환이주를 수용국가로의 통합의 단순한 '성공' 또는 '실패'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주를 결말이 열린 개방적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Pries, 2013: 68-69).

출신국가와의 사회적 관계와 연결을 강조하는 초국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받아 보다 세분화된 귀환이민 유형론이 시도되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귀환이민자를 분석한 Hans-Liudger Dienel은 귀환이민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 외에 가족 또는 파트너 관계 등 정서적 요인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만족 그리고 자연 경관이나 날씨 또는 양육환경 등과 같은 동기는 경제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민자는 직업적인 성공 여부 또는 경제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개인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귀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귀환이민자 유형을 추가했다. 가족의 사회적 유대 내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가족 귀환자(Familienrückkehrer)'. 파트너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관계 귀환자(Beziehungsrückkehrer)', 향수병을 앓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연결망으로 귀환하는 ‘정서적 귀환자(Emotionale Rückkehrer)가 그것이다(Dienel, 2016: 77-98).

3. 귀환이민 유형화에 따른 귀환이민자의 동기

3.1. 경제적 동기인가? 초국적 이민자인가?

신고전주의적 경제이론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은 출신국가로의 귀환 이민을 경제적 실패로 인한 결과로 해석한다. 출신국가로 귀환하는 자는 수용국가에서의 소득 향상에 실패한 자라는 가설을 수용한 까닭이다. OECD 국가로부터 중부 및 동부 유럽으로 귀환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로 귀환이민자들의 소득이 수용국가에 그대로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비해 더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다(Lang and Nadler, 2014: 32-34). 이런 점에서 이 ‘실패’ 가설은 부분적으로는 타당성을 입증했다. 물론 이러한 통계도 수용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물론 귀환이민자 역시 이민 이전의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귀환이민의 동기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경제적 소득을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귀환이민에 대한 구조주의적 및 초국주의적 접근에서 간략히 살펴본 Cerase과 Dienel의 유형론을 참조하여 4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의 귀환이민 동기를 탐색해 보는데 놓여 있다.

A의 경우, 한국 대학에서 게으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환멸을 느낀 남편의 주도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한 지방광역시에서 태어나 30대 초반이었던 2011년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2015년 여름 미국으로 떠났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전인 2019년 겨울 한국으로 귀환했다. 미국으로 떠날 때 기대했던 남편의 취업이 실패로 귀착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미국에서 친구의 가게(바)에서 알바의 형태로 “쓰레기나 줍는 허드렛일”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의 귀환은 신고전주의경제학

이 말하는 실패로 인한 귀환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가족의 이민 및 귀환 동기를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그녀는 이민은 자신에게 “운명”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외국으로 나다니는 것을 생각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녀는 한 나라에서만 살다가 죽는 거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 아내의 이민 동기는 “역마살”이 끼인 여자라는 스스로에 대한 규정 속에 함축적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자신의 ‘역마살’을 집안의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끌어온다. 초등학교 다니는 그녀에게 점쟁이 고모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점괘를 봐주셨다.

“너는 역마살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 살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면 평생 한국에 없고 외국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 거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 외국사람 만나서, 진짜 살고 다 했더라고요. (...) 진짜 이게 운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는 이 외에도 미국에서 사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논리를 이민 동기로 내세웠다. “자기한테 우리나라가 외국인데, 와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쌍방에 한번 이해해보는 경험도 되고 좋겠다. 그래야 뽀뽀 아닌가?” 그녀는 “설마 굶어죽겠냐?”며, 자신의 이민이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과 관련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녀가 미국이 “기회의 나라”여서 이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만큼, 최소한 그녀에게 경제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이민의 일차적 동기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그녀의 귀환 역시 경제적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네일숍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한국에서 직장생활 했을 때보다 훨씬 높았고, 그녀는 미국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여자인 제가 전문직 그런 것도 아니고. 박물관 큐레이터도 몇 년 하긴 했는데 (...)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막상 미국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주 4일 근무했는

데 정말 많은 캐시를 손에 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유로웠어요. (...)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으로의 귀환은 미국사회에서의 경제적 실패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물론 A의 사례는 Cerase가 말하는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실패의 귀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녀는 결혼이민자로서 미국사회에 잘 스며들었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했다. 지금도 미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한다. 또한 그녀의 사례는 Dienel이 말하는 '정서적 귀환' 유형과도 무관하다. 그녀는 고향에 남겨둔 가족이 그리워 한국으로 귀환한 것도, 한국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지쳐 돌아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한국이 생각나는 대목은 주로 음식이다. 부모님은 명절 때만 생각났는데, 그것은 장남만을 위하는 부모님과과는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귀환 장소로 고향을 선택한 것은 가장 익숙한 그리하여 귀환하여 집을 구하고 창업할 때 가장 용이한 장소였을 뿐이다. 고향은 그녀에게 미국 동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벚꽃이 만개한 장소로 기억된다. "동부 쪽이라서 봄이 엄청 늦게 오잖아요. 그럼 이때쯤에는 고향에서 벚꽃 피었을 텐데. (...) 그때 빼놓고는 (고향이 생각나는 순간이 - 필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만 아니었으면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생활에 만족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창업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했고, 그녀는 가족과 함께 귀환했을 뿐이다. 요컨대 그녀의 귀환이민은 신고전주의경제학이 말하는 경제적 의미의 '실패'의 귀환도 아니고, Cerase가 말하는 사회통합에서 실패한 귀환도 아니며, Dienel의 '정서적 귀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녀는 또 다시 이민을 꿈꾼다. "그냥 다시 미국 갈까?" 남편이 물어본 적이 있다. 아내는 되묻는다. "당신은 어때? 내가 봤을 땐 당신은 또 정착을 못 할 것 같은데. 가면 할 게 없잖아." 그녀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남편은 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언제든 떠날 마음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관건이다. 그녀는 미국이 아니라, 태국이 어떻겠느냐며 남편에게 역제의를 한다.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국과 미국 또는 제3의 국가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삶의 목적지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A는 21세기에 전형적인 ‘초국적 이민자’ 유형에 가깝다. 그녀의 귀환이민은 이주 주기의 종결이 아니라, 그녀의 초국적 생애전략에서 하나의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

C의 귀환 역시 경제적 의미에서 실패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 그녀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미국인 남편을 만나다보니 “어찌다 그렇게” 되었다. 그녀는 직장 근처 바에서 만난 미국 군인과 2000년 초 결혼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녀는 미국 이민 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캐드 자격증을 획득했고,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2011년 남편과 함께 태국에서 2년 여 체류했다. 그러나 남편의 변심으로 별거하게 된 그녀는 2013년 미국으로 혼자 되돌아갔다. 이후 악기를 판매하는 미국인 애인을 사귀었으나, “낭만과 기질”의 애인은 그녀가 극심한 고립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나이 마흔을 넘어서자, 독신 이민자로 미국 땅에 혼자 내버려져 있다는 고독감에 시달렸다.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벌렁거렸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듯이 느껴졌지만,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그녀가 심리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당시 그녀는 사고를 당해도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다는, 병원에 혼자 내버려질 수 있다는 악몽에 자주 시달렸다. 결국 그녀는 코로나 발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귀환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녀의 귀환은 Diemel의 유형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가족 귀환’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Diemel은 직장 상실 또는 애인과의 별거로 애초의 수용지역에 더 이상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가족 곁으로 되돌아오는 이민자를 염두에 두고 이 개념을 적용한 바 있다(Diemel, 2016: 84). 그러나 귀환한 그녀는 한국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박봉을 받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녀는 또 다시 이민을 꿈꾼다.

경리 일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 나이는 많지만 완전 대학 초봉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배운 기술들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자책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귀환에 대한 후회로 이어졌다.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들어올 걸 그랬나?” 그녀는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 TBN의 외국인 방송 듣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녀는 얼마 전 하와이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났음을 알려왔다. 그녀의 귀환이민은 결국 또 다른 이민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귀환이민 후회는 단순히 부모님과 결함의 의미 약화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후회”는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녀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인종차별을 느낀다. 그것은 특히 직장 동료들이 그녀를 ‘미국인’으로 타자화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안 나가봤으니까 정말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것 같거든요. (...) 이해를 못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싫으면 미국 가라,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차별적인 발상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자체가.

나이를 따지는 한국사회의 특징은 그녀에게 특히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동료들은 직장 내 서열 의식 등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그녀를 ‘미국인’ 취급했다. King과 Christou는 미국과 독일에서 그리스로 귀환한 이민자에게 발견되는, 그리스에 대한 좌절과 실망을 ‘뒤집힌 초국주의(reverse transnationalism)’라고 명명한 바 있다(King and Christou, 2014: 7-8). 한국사회에 대한 그녀의 ‘반감’은 바로 이러한 뒤집힌 초국주의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스의 뒤집힌 초국주의는 그리스로 귀환한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이민지였던 미국과 독일을 ‘마음의 고향’으로 표현하도록 했다면, 한국사회에 대한 그녀의 ‘반감’ 역시 그녀로 하여금 미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녀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드러낸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늘 그리웠고, 한국에 오니까 다시 미국이 그리하다는 것이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미국에 있을 때는 계속 한국에 오고 싶었거든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계속 미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왜 그런

지?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귀환과 재이민과 관련하여도 표출되는 C의 이러한 양가적 감정은 바로 초국적 이민자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

3.2. '실패의 귀환'인가?

중남미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차별과 낙인 때문에 귀환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Miryam, 2017: 11).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 등 다른 수용국가에서도 유사한 또는 더 나쁜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난민 또는 이민자의 신분으로 유럽으로 들어온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직접적 인종차별과 낙인을 경험하고, 수용국가를 떠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pauli, 98-99). 그러나 이때 그들의 귀환을 인종차별 또는 낙인의 직접적 경험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의 귀환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민자들이 수용사회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향수나 소외감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의 사회적 소외감과 불안정서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 육체적 건강까지 훼손할 수 있다. 이민자들로 하여금 귀환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이런 푸시 요소들은 수용국가에서 이민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선진이민국가'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수용국가에서 이민자들의 사회적 편입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통합과 관련하여, 단순한 경제적 편입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편입, 즉 이민자들의 '홈 만들기' 욕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B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자신의 '홈'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귀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B의 미국 이민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한 번 하겠다 하면, 그냥 해보는, 밀도 끝도 없이 해보는 스타일”이었던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어떤 분이 텍사스에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자, 2003년 무작정 이민을 떠났다.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 유명 사립대를 졸업했다. 대학졸업 후 얼마간 카이스트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나, 이민생활을 위한 일종의 테스트로 캐나다에서 6개월가량 체류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월남파병 군인 출신의 아버지로부터의 “도피” 심리가 이민의 주된 동력이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이민 동기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내용은 첫 일성이었다. 결혼을 통한 가족 탈피는 그녀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민이었다. 미국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것 같았고, 해방을 느낄 것 같았다.” 미국사회라는 “큰 물”에 놀고 싶었다. 여러 인종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싶었다.

이민 초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개미와 같은 일상을 살았다고 떠올린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삶에 대한 회의가 그녀에게 밀어닥쳤다. “주머니는 채워지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우울증도 찾아왔다. 그녀의 건강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주변의 누구 하나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민자로서 너무나 좁은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지 10년 세월이 지나던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진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던” 이민자의 외로움이 마음의 병을 낳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일방적 통보를 남기고 2019년 한국으로 귀환했다.

그런 거를 추구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좋은 차 타면, 좋은 집 있으면,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제일 죽고 싶었어요. 허망했어요. 집도 좋은 집이고, 차도 정말 좋은 거 탔고, 돈도 한 달에 잘 벌고. 그런데 안 행복해요. 엄청 싸웠어요, 남편하고. 엄청 죽고 싶었어요. 외롭고.

그녀는 자신의 귀환을 결정지은 마음속의 병을 “외로움”이란 단어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제 여기서 살 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그 순간부터 본질적인 외로움”이 생겨났다.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살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양로원 가는 건가? 나는 그냥 이방인으로 평생 미국에서 이렇게?” 특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와 같은 미국 명절에는 철저히 혼자임을 느꼈다.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항상 혼자 있었고. 집이 더 싫은 거예요. 집이 크면 더 싫은 거예요. 더 외로우니까.” 그런데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고향 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과의 이별에서 오는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외로움의 정체는 자신의 속마음을, 힘든 문제를 털어놓을 만한 친구조차 없는, 미국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민자가 느끼는 외로움은 수용사회로의 해당 이민자의 소속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녀는 미국사회, 아니 보다 좁게 그녀가 살고 있던 달라스 사회로의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미국사회의 차별과 이방인에 대한 시선은 그로 하여금 그가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을 늘 일깨워주었다.

(미국사회에 소속되겠다는 - 필자) 마음으로 갔는데, 철저히 이방인인 거를 계속 각인시켜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하루에도 수십 번 얘기를 하다 보면. (...) 거기 특히 텍사스에는 옛날 한국전 참전하신 용사들이 많아요. 베테랑들이. 그러면 옛날 50년대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살던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트남 시골 얘기하듯이, 화장실도 없고, 문도 없는 집인데, 우리가 가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등.

그녀는 그런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주류사회로부터의 ‘타자장소화’를 경험했다. 타자장소화는 어쩌면 당연하게 그녀 내면에 “외국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자기장소화’ 기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 사회의 주체가 아닌, 이방인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녀가 미국생활을 떠올리며 소환한 첫 기억은, Cerase가 이탈리아로 귀환한 이민자들의 인터뷰에서 ‘실패의 귀환’과 관련지어 지적한 것과 동일한 “외로움”과 “고통”이었다(Cerase, 1074: 249). Cerase는 이탈리아 남부 출신 농부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경험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굴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직면”한 이민자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소속감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실패의 귀환’이라고 명명했다(Cerese, 1974: 248).

달라스는 다양한 인종이 있는 곳이어서, 그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움츠려 들었다. 그녀는 이민자로서 수용사회로 제대로 통합되지 못했다. 이민을 떠날 때는 정반대의 미국생활을 꿈꿨다. “큰 대도시에서 여러 인종과 어울려 지내고 함께 웃고 즐기는”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그마한 가계에, 조그마한 집에서 한국 티브이를 보고, 주로 한국말 하고, 한국음식 먹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조그마한 어항에 갇혀 있는”, “한국보다 못한 미국 생활”이었다. 미국이 싫어졌다. 그로부터 마음의 병이 생겨났다. 요컨대 그녀를 귀환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동력은 미국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마음의 병을 털어놓지 못했다. “이민자 사이가 좁아요. 누구누구인지 다 알다 보니까.” 그녀가 유일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던 한인교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너무나 좁은 한인사회, 그로 인해 자기들 세계에만 갇힌 폐쇄적인 이민사회의 현실을 목도했다. 그녀는 미국의 한인사회를 “조금 좋은 집에서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마음 하나 털어놓을 대상이 없는 사회”라고 규정한다. 그녀가 한국으로의 귀환을 생각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그녀에게 자살충동이 들면서였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미국 생활이 힘든가? (...)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건, 이왕 죽을 바에는 한국에서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을 정도니까, 마음의 병이 많이 심했죠.

한국으로 귀환한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하다. 그녀의 행복은 무엇보다 이민자로서 항상 긴장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을 이방인처럼 쳐다보지 않는”, “모두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과 함께 있는”, “튀지 않는” 삶으로부터 오는 안도감이다. 이러한 안도감은

Cerese가 ‘실패의 귀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지적인 심리적 ‘안정감’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에 따르면, “자신에게 소속감을 주는 친숙한 어떤 것”에 매달리면서, 수용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민자는 결국 귀환한다(Cerese, 1074: 249).

이렇게 같은 걸 먹고,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거구나. (...) 한국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한국에서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그녀가 소속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여 그녀가 미국사회에서의 느낀 자신의 소외감의 원인을 자신을 이방인 취급한 미국사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소외감의 원인의 일단을 자신의 “촌년 DNA”에서 찾는다. 그녀는 우선 자신이 국제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자신의 사고방식이 매우 협소했고 개방적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그녀는 귀환한 이후 이민과 관련하여 가장 후회되는 것이 “미국을 사랑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려는 사람들 “철저하게 미국을 사랑하라”고 조언한다.

사랑하라! 저는 미국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사랑해야 내가 영어도 더 하고 싶고, 그 나라의 역사도 알고 싶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마이너라는, 이방인이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 이렇게 큰 태평양에 갔는데, 완전 요만한 컵 안에 있는. 이 상황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귀환이민과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실패’ 가설은 귀환이민자의 동기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민과 귀환이민의 틀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 차원의 푸시풀 요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B의 사례는 귀환이민의 의사결정에 그들의 취업 및 소득과 관련

된 경제적 요인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이를 테면 사회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귀환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Cerase가 말하는 ‘실패의 귀환’은 경제적 요인 외에 이민자들이 수용국가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수용이라는 요인을 함께 분석해야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3.3. 이민자의 고령화와 ‘정서적 귀환’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D는 유일한 은퇴자이다. D의 귀환은 Cerase의 분류에서 ‘은퇴 귀환’ 유형에 속한다. Cerase는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연금을 통해 이탈리아에서 보다 더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보장될 때 귀환하는 경우를 ‘은퇴의 귀환’이라고 명명했다 (Cerase, 1074: 251). 특히 가족을 미국에 두고 있지 않은 이민자가 귀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했다. D는 바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녀는 만 26년을 미국에서 독신으로 지내고 2020년 고향인 지방의 한 광역시로 귀환했다. 그녀는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영구이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사학위가 끝날 무렵, 한국에서 IMF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그녀는 일시적 체류를 생각하고, 미국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나브로 임시 체류가 장기간의 이민으로 변해갔다. “나이도 성별도 차별하지 않는” 미국에서의 직장생활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에 살면서 소수민족 소속의 이민자라는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녀는 한국에 있을 때의 의식 그대로 ‘순수 한국인’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은퇴시기에 맞춘 한국으로의 귀환 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환 계획은 뜻하지 않던 “테크니컬한” 문제에 부딪혔다. 그녀는 한국으로의 귀환을 1년 쯤 앞둔 2019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해서였다. 그 대가로 그녀는 한국정부가 외국인인을 위해 발급하는 거소증을 3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그녀가 치르게 되는 불편은 한국생활이 주는 이득에

비해 크지 않다. D는 자신의 귀환의 장단점을 이민자의 고령화와 연관 지으며 비교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때 장점이 있고, 한국에 살 때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나이 드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이 들었을 때 오는, 우리가 건강, 헬스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니까.

그녀의 귀환동기에는 이민자로서 수용사회에서 나이 들어감, 즉 이민자의 고령화 문제가 배경으로 작동한다. 이민자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남에게 의탁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운전을 싫어하는 그녀에게는 이동성이 제일 큰 문제로 부각된다.

여기서는(한국에서는 - 필자) 택시를 불러도 편하고 지하철도 다 있고 버스도 있고. 미국에서는 택시 불러도 택시 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제가 나이 든 거를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이 그녀의 독자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녀의 노후 생활에 실용적으로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이 한국으로의 귀환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이다. 따라서 그녀의 귀환을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의미에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 ‘뿌리’를 찾아 귀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녀의 한국으로의 귀환에는 한국인이라는 의식, 한국어의 따뜻한 정감, 이 모든 것이 작용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은 어떤 ‘민족혼’에 대한 애착 또는 ‘디아스포라적 귀소본능’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D의 사례는 귀환의 실용적인 동기를 강조하는 Tsuda와 Song의 주장에 보다 어울린다. 그들은 귀환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에 대한 애착과 출신국가에 대한 고유한 민족적 유대감과 동경”이 아니라, “도구적이고 실용적인(instrumental and practical)” 판단이라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Tsuda and Song, 2019: 24).

그녀의 귀환의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녀의 서사를 관통하는 “외로움”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녀의 귀환

이 단순한 독신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독신으로 수용사회에서 혼자 나이 들어감 그리고 그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D는 자신이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도한 혼자 나이 들어가는 한인이민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투영한다.

제가 봉사한다고 나이 드신 분한테 제가 친절하게 대하면, 와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느끼죠. 이분이 일주일 내내 제대로 말을 못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니까 좀 마음이 서늘해지는.

그녀가 관찰한 노년의 한인이민자들은 “일주일 내내 한국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방에 갇혀” 있었다. 그녀가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양로원에서 혼자 생활하던 한 한인이민자가 고독사 한 경우도 목도했다. 그녀는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는데, 동부부에 있는 자식과 연락이 되지 않아 교회가 나서서 장례를 치렀다. 교회에 온 노년의 이민자들이 “그냥 밥에, 흰밥에 고추장 하나인데”, 너무 맛있게 먹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다른 인종과 함께 사는 양로원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음식을 제대로 해먹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말 할 상대도 거의 없다.

한인들 만나면 정신없이 얘기해요. 한국말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래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만나면 또 그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

B 역시 교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 그 최종 종착지는 결국 양로원이고, 지금 자신이 목도하고 있는 노년의 한인 이민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B와 D가 관찰한 노년의 한인 이민자의 외로움은 한국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없는, 한국어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수용사회의 생활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B는 “더 이상 미국에서 평생 살 자신”이 없어졌다. “아니야 여기서 죽고 싶진 않아. 내 딸년을 여기서 지내고 싶지 않아”라고 외친다. B와 D의 귀환 결정은 바

로 그들이 관찰한 노년의 한인이민자의 외로운 삶, 고립된 삶으로부터의 탈출하겠다는 욕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귀환한 D는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집에 갇힐 일이 없다. 택시도 있고 지하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집에 있는 생활 참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귀환한 그녀는 스스로를 “집순이”라 칭하며 집에 있는 것을 즐긴다. 그녀는 이제 이민자로서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 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것은 B와 D의 사례가 Dienel의 분류에서 ‘정서적 귀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ienel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의 정서적인 만족 또는 익숙한 자연환경이나 기후 등의 생활환경의 요소가 귀환이민의 주요한 동기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Dienel, 2016: 101). Dienel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귀환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같은 언어 및 문화를 공유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같은 한국어를 쓰는 동일한 문화권과 익숙한 생활환경은 정서적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우선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경제학의 관점에서 A를 비롯한 다른 인터뷰 대상자의 귀환이민 동기를 살펴보았다. A의 사례는 귀환을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성공’과 ‘실패’로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녀 가족의 미국으로의 이민에는 남편의 취업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 자신의 운명에 “역마살”이 끼었다고 표현하는 데서 드러나는, ‘외국 살이’에 대한 소망과 공평하게 남편의 나라에서도 살아보겠다는 ‘배려’의 차원이 같이 작동했다. 게다가 A 가족에게 한국으로의 귀환은 이주 주기의 종결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한 단계에 불과했다. 귀환이민 ‘이후’가 귀환이민 ‘이전’이 된 경우는 C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초국적 이민자’로서의 반복적 이주 과정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Cerase의 귀환이민 유형 분류 중 ‘실패의 귀환’이란 관점

에서 특히 B의 사례를 분석했다. B의 귀환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용사회에서 이민자가 느끼는 소속감 또는 통합의 문제를 함께 고려했을 때, 그 동기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참여는 그 강도가 높을수록 귀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본 연구는 비록 수용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착했지만,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때 B의 귀환이 '실패'의 결과라면, 그 실패는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Dienel의 유형론을 빌려 귀환이민의 '정서적 동기'에 주목해 보았다. 특히 D의 사례를 통해 귀환이민의 동기로서 정서적 요인이 이민자의 고령화와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D는 물론 B 역시 교회봉사활동을 통해 노년의 한인이민자의 소외감을 직접 관찰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귀환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했다. 또한 D의 귀환은 이민자의 고령화와 귀환이민의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녀의 귀환은 무엇보다 노년이 되었을 때, 남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내려진 결단이었다.

참고문헌

- 김영철(2016). 아르헨티나 재외동포 1.5세의 역이민과 정착 연구, 〈한국민족문화〉 60, 83-111쪽.
- 백은지(2019). 역이민 재외동포 1.5세대의 문화재적응 과정 : 북미거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정(2021). 귀환이주자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북미지역에 거주했던 귀환이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논문.
- 정용문(2020). 한인 이민자 귀환이민 의향 결정요인: 호주 한인 사례. 〈한국사회정책〉 27(3), 107-130쪽.
- 프리즈, 루드거(2023). 최대회·장영숙 옮김. 초국화: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사회

- 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문화사.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번역총서 · 3.
- 통계청(2020). 해외이주신고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4.
- Carling, Jørgen and Marta Bivand Erdal(2014). Return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How Are the Two Connected?, *International Migration* 52(6), 2-12.
- Cassarino, Jean-Pierre(2004). Theorising Return Migration: The Conceptual Approach to Return Migrants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6(2), 253-279.
- Cerese, F. P.(1974). Expectations and reality: a case study of return mig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ern Ital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8(2).
- Dienel, Hans-Liudger(2016). *Rückwanderung als dynamischer Faktor für ostdeutsche Städte*. nexus Institut für Kooperationsmanagement und interdisziplinäre Forschung GmbH.
- Hazán, Miryam(2017). *Understanding return migration to Mexico: towards a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reintegration of returning migrants*. UC San Diego: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https://escholarship.org/uc/item/5nd4q6n3>
- Dumont, Jean-Christophe and Spielvogel, Gilles(2008). *Return Migration: A New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 2008 Edition, 161-222.
- Lang, Thilo(2013). *Return migration in Central Europe : current trends and an analysis of policies supporting returning migrants*, Leipzig.
- Lang, Thilo, Nadler, Robert(2014). *Return migration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transnational migrants' perspectives and local businesses' needs*, Leipzig.
- Lee, J.Y., Friesen, W. and Kearns, R.(2015). 'Return migration of 1.5 generation Korean New Zealanders: Long term and Short term reasons', *NZ Geographer* 71, 34-44.
- Markowitz, Fran and Stefansson, Anders H.(2004). *Homecomings: Unsettling Paths of Return*. Lexington Books.
- Pauli, Julia(2021). Return Migration. In: *Handbook of Culture and Migration*, Jeffrey H. Cohen and Ibrahim Sirkeci(eds.), Edward Elgar. 95-109.

- Pries, L.(2013). Neue Dynamiken inter- und transnationaler Migration: Herausforderungen für Wissenschaft und Politik. In: Pusch, B.(eds) *Transnationale Migration am Beispiel Deutschland und Türkei*. Springer VS, Wiesbaden.
- Salaff, Janet W.(2012). Return migration. In: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Migration Studies*. Routledge: New York.
- Tsuda, Takeyuki and Song, Changzoo(2019). *Diasporic Returns to the Ethnic Homeland: The Korean Diaspor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필자 소개

성 명 최대희

소 속 전남대학교

주 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산학협력관3, 203호

전자우편 ppiraten@naver.com

Abstract

A Case Study of Return Motives for Korean-American Migrants Based on the Typology of Return Migration

Choi, Dae-hee
(Chonna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motives of 4 Korean returnees from U.S.A. The case of A reveals that it does not any more appropriate to divide the “success” and “failure” of return migration solely by the economic motives. For family A, the return migration to Korea was not the end of migration cycle, but an another start. The motivation for B’s return can be accessible, only when the problem of inclusion or integration of emigrant in the host society should be considered. If B’s return would be the result of emigration “failure,” it is not an economic failure, but a “failure” to be integrated into the society. Lastly, based on Dienel’s typology theor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emotional motives” of return mi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D and C, the emotional factor as return motivation proves to become more significant, along with aging. These cases clearly demonstrated the inter-connectedness of aging and return migration.

[Key words] return migration, theory of return migration, transmigration, Korean-Americans, motive for return migration

투고일 2023. 10. 10 / 심사일 2023. 11. 07 / 게재확정일 2023. 11. 14